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⑨

이런 호부리는 세 번째 도리천 궁(利天宮) 법회에 참여하기로 한다. 약한계(六六四及與三)의 세번째 '六'에 해당한다. 따라서 6월 13 승수미산정(勝壽彌山頂)을 보면서 이런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수미산 꼭대기는 사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뜻한다. 바로 하늘사람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화엄에서는 설법 장소가 지상만이 아니다. 도리천 궁과 아미천궁을 비롯하여 도솔 천, 타화자재천궁에서도 설법을 한다. 인간과 천상을 비롯한 삼계의 모든 중생이 청중인 셈이다.

제13 승수미산정(勝壽彌山頂)이다. "그 때에 여래의 위신력으로 시방 일체 세계 날날의 4천화 염부제 가운데 다 보니, 여래께서 나무 아래 앉아 계셨는데 각기 보살

佛從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인용한 부분은 처음과 마지막 계승을 소개한 것이다. 이 내용은 부처님이 좌정하시니 그 곳이 가장 길상한 곳이 되었다는 말이다. 길지명당(吉地明堂)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살면 그 곳이 가장 좋은 곳이 된다는 뜻이라. 그래서 신라인들은 황룡사를 장건하면서 7곳의 명당(化處伽藍地)을 정하고 이곳이 과거불인 가섭부처님께서 도를 닦으셨던 길지라 하면서 신라인들의 마음 속에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던 것이다. (禮事 권3 迦葉佛冥坐石)

불교의 세계관에서 하늘은 우리 인간과 동떨어져 있거나 기독교에서처럼 중생을 지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그들은 천상 음악으로 이해하였고, 먹구름이 모여 큰비를 내리면 천상과 인간을 오가는

누구나 늘 부처님 대하고 있어

가섭불도 닦던 이땅 불국토로 가꾸자

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여, 스스로 이르되 항상 부처님을 대하였노라 하고 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靡不自謂恒對於佛) / 그 때에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오르시어(不離一切菩提樹下而上昇須彌) 제석천의 중천으로 향하셨다."

여기서 모든 중생은 모두가 자신이 바로 부처님을 늘 친견하는 것으로 느끼는 점과 세존은 항상 중생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온갖 곳에 모습을 나타내시어 설법을 하신다는 점이다. 계승을 보자.

"가섭여래께서는 큰 자비를 구족하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러므로 이 곳이 가장 길상하나다(德業如來具大悲 諸吉祥中最無上 彼佛從來入此殿 是故此處最吉祥). ... 연등여래께서는 크신 광명을 가지셨으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러므로 이 곳이 가장 길상하나다(然燈如來大光明 諸吉祥中最無上 彼

음이 비를 내리는 줄로 알았다. 그래서 현상에 항상 조심하고 선정을 닦아야 다음 생애 즐거움이 충만한 천상세계에 나는 줄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갠지스강의 넘치는 물은 하늘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축복으로 알고 항하(恒河)를 신앙의 상징으로 이해하여, 아무리 어렵더라도 평생을 한 번 항하에 가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신앙과 예술, 문화가 여기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모두가 항상 직접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靡不自謂恒對於佛) 인 것은 불교 신앙의 기본이 될 것이며, 과거 부처님의 수행도량이었던 정신을 되살리는 데 불교인이 모범이 되어야 하리라. 덧붙여서 하늘과 강이 이처럼 친근한 종교는 환경문제에 가장 순순하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데 앞장 서 나가야 할 것이다. 부처님과 비리가 만연한 나라가 아닌 온누리가 부처님도량이 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후손에게 훌륭한 전통을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불교사상사상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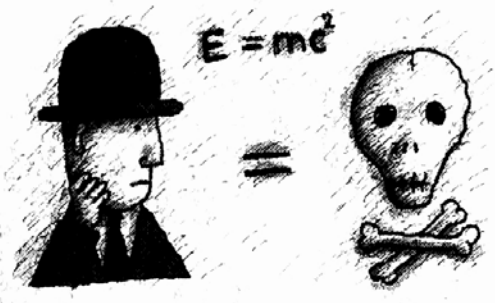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불생불멸 부증불감을 입증

불교와 과학 <28>

아인슈타인의 E = mc²이라는 자연법칙의 공식이 있음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 공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의 물질과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동가하여 질량을 갖는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인간이 찾아낸 최고의 자연법칙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활자로 찍혀 있는 마칩표 하나에만 은하계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수의 양성자가 들어 있는데, E = mc² 아인슈타인 공식에 의하면 그런 양성자 하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질량이 200 MeV 에너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이 현대불교신론 한 장의 질량은 어림잡아 전 세계 인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물론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고도로 불안정한 상태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같이 질량이 큰 원자만이 아인슈타인 공식을 현실에서 응용하는데 쓰일 수 있다.

$$E = mc^2$$

질량-에너지는 하나 모습 바뀔뿐 종합 일체

그런데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이 흥미롭다. E = mc² 아인슈타인 공식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를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법칙이라고 말한다. 질량과 에너지는 하나이고 가시적인 물질과 비가시적인 에너지가 하나라는 뜻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20년 전에 이미 화학자인 라부아지에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것이다. 라부아지에에는 20년 동안 하루 6시간 이상을 금속의 색이 나는 실험 관측에 몰두하면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생각을 확고히 했다. 그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녹이 슬기 이전의 금속과 녹이 난 후의 금속의 질량을 정밀한 저울을 통해서 비교하였다. 녹이 스는 현상은 금속 산화현상으로서 일종의 화학반응이다. 금속이 녹이 슬면 순수 금속 원래의 금속의 질량은 당연히 줄어 들 것이다. 그러나 녹이 슬면서 나오는 산화열을 고려하고, 녹의 질량 그리고 남아 있는 금속의 질량을 합하면 원래의 금속 질량과 같다는 실험값을 얻어내었다. 결국 화학반응 이전과 반응과정 이후의 전체 질량의 값은 같다는 결론을 라부아지에에 내렸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라부아지에의 생각을 이어 받았고, 에너지가 보존되는 체계를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폐쇄된 체계

가 아니라 광대한 우주 영역에 펼쳐 놓았다. 에너지 보존법칙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새로이 생성되는 것이 없이, 그 전체 총량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물질 체계에서 물질이 없어졌다는 것은 실제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 체계로 옮겨진 것일 뿐이며, 새로이 생성된 것은 다른 체계에서 전이해 온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 전이과정에서 물질이 전이되어지는 그러한 물질 형태는 가시적이고 부피를 지닌 질량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형태를 띄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말한다. 그때 에너지 총량이 보존되는 체계는 국지적인 체계가 아니라 우주 총합적인 전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 총합적인 전체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우주의 크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 체계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말하고 있지만 전체 우주계의 차원에서 본다면 생성되는 것도 없고 소멸되는 것도 없다. 작적이 타고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원래의 장작과 장작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과 재 그리고 남은 숲의 에너지를 합하면 원래 장작의 잠재 에너지 값과 같은 것이다. 그 화려하던 황제의 몸도 죽지 않는 것이 없으며, 죽으면 뼈를 뼈이다. 사람이 죽어 썩고 나면 그 사람은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원래 에너지의 값과 썩으면서 생긴 산화열, 그리고 그 삶을 파먹은 벌레와 곰팡이의 신진대사 에너지 등을 모두 합하면 원래의 사람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썩고, (요구르트가) 발효하고, (식재) 삭고, (메주) 뜨고, 곰팡이 나고, 녹슬고, 불에 타며, 화학적인 산화반응, E = mc²의 과정을 통해 핵분열 하는 등등은 모두 같은 자연의 현상이며 단지 산화하는 속도의 차이일 뿐이다. (물론 핵분열 과정은 좁은 의미의 산화과정이다) 이런 현상이 폐쇄계에서 일어날 때 물질이 전환되거나 소멸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전환과 소멸은 단지 에너지의 전이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에너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물질 세계는 생성되는 것도 없고 소멸되는 것도 없다. 단지 다양한 물질의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는 우주 연극의 배우들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는 극장 객석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생성과 소멸에서 오는 인간의 집착이라는 색안경을 벗어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최충욱/상지대 교수 jchok@chiak.sangji.ac.kr

“불교, 삶 이끄는 나침반” 禪·법문집 베스트 셀러

지구촌 불교 / 美 서점가 불서 열풍

미국인들이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나 정신영역 개발을 다룬 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이버 서점인 아마존닷컴(amazon.com)에 따르면 불교를 주제로 참다운 삶의 길을 제시하는 책들이 급격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미래의 삶에 대한 통찰력 9가지, 물질문명보다 정신문화를 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인 달라이 라마의 <현대의 윤리(Ethics in a Modern World)·사진 위>의 경우 지난해 말 발표된 이래 60여 만 부가 팔리면서 줄곧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켄 맥Leod의 <삶을 깨워라(Wake Up to Your Life, 사 진 이라) 역시 비수설 분야의 베스트셀러다. 맥Leod 씨는 이 책에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여성불자의 경험담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겪었던 인생의 의미를 독자들의 가슴에 전해주고 있다. 이런 책의 인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카렌 암스트롱의 <부처님(Buddha), 소 갈 린포체의 <티베트인들의 삶과 죽음의 책(The Tibetan Book of Living and Dying)> 등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들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중 삼발라 출판사에서 올 초에 펴낸 <부처님>은 불교 관련 서적으로는 드물게 짧은 기간에 무려 10만 부나 팔렸다. 또 불자로서의 성장 과정을 생생

‘현대의 윤리’ ‘선입문서’ 60~70만부 팔려 물질문명 선도하는 정신문명 관심 반영

하게 적은 나탈리 골드버그의 <덜고도 고요한 고속도로(Long Quiet Highway)>도 7만 부나 팔리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본의 선승 스즈키가 1972년에 발표했던 <선입문서(Zen Mind Beginner's Mind)>도 지금까지 70만 부나 팔렸으며, 최근 들어서는 판매고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 질판된 불교 서적들이 다시 출판되고 있다. 1938년에 발표되었던 <불교도 바이블(A Buddhist Bible)>이라는 책도 지난 3월에 다시 찍었으며 오는 10월에는 유명작가 앨런 와츠의 <선을 말함(Talking Zen)>이 웨더렐 출판사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아마존닷컴 측은 “정신의 르네상스라고까지 불리는 이런 변화는 21세기의 초인에서 환경문제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팽배해지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이 이성과 물질을 앞세우는 서구문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 관련 책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삶의 지혜를 얻겠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나오지만 종교적인 단계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각종 통계를 보면 지난 80년 이후 세계에서 불교단체의 성장세가 가장 높았던 지역도 미국 쪽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불교관련서적 못지않게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비주의 분야의 책으로는 <5개의 복음(The Five Gospels)>, 잭 스톱프의 <부활, 신화나 현실(Resurrection, Myth or Reality)> 등을 꼽을 수 있다.

● 오종욱 기자 gobocou@buddhapa.com

생명의 빛 神燈(신등의) 秘密(비밀)공개!

(T.D.P치료기)

- 중국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전전자기파, 생체 에너지파,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반도체파, 초단파 등 11개 과정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과정은 피부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 파괴된 염색체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주며,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 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신비에 있다.)

블랙디스크(Black Disk)란 TDP치료기의 핵심장치로서 인체구조의 기본 원소인 30여종 무기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증에 건강과 행복을 지키주는 필수품(중상범)

1.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증으로 악성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2.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떨고 절인 증상 등
3.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4.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소변에 이상이 있는 이뇨장애자
5.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기관염으로서 깊은 잠을 못자는 분
6. 피부증상(악성 세균성 피부질환, 오일곰, 습진, 무좀 화상이 잘 안발는 거친 피부)
7.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불임, 불감 제증상)
8. 고질적인 치질·치루·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9. 전립선 기능장애와 생식기능 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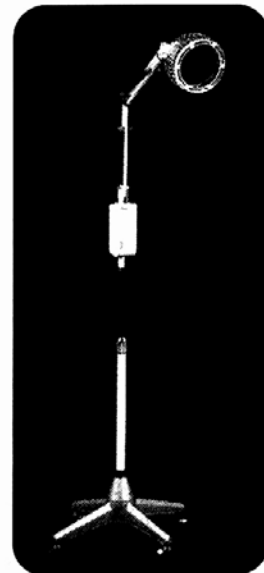
- * 전세계 발명품 금상수상 (중국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화학 200명 임상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겸 가정용) 한국 수입 품목 허가 번호 (01-506) 한국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곳 설치 사용중
- 미국F.D.A에서 특정 저파파(특정저파파)치료기 인정 (K875052)
- 유고 의료박람회 금상, 벨기에 부르셀박람회 은상
- ISO (9001) 획득

* 각종자료 - 무료 우송함

● 전국 대리점 모집 중 ●



세계발명품 박람회 금상수상



(수입원) (주) 휴먼라이프 상담대표전화 : 주,야 02)522-2464 / H.P: 011)9742-2550

100% 순수 토종 오가피

학명ACANTHOPANAX(아킨토파니스) : 민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 (久服即, 經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한 오가피

100% 순수 토종오가피를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진실하게 공급합니다.

컸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100% 토종진품 (무방부제, 무색소, 무첨가물)
- 토종오가피 국내최대용량 110ml x 60포 (한박스)
- 농장직영 국내최저가격 ₩150,000 (한달분)

서북토종오가피 농장 직영

오가피건강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080-700-5700 02)444-4194

* 100% 순수토종오가피는 귀하의 모든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3천 3백 3십 3배

(제 4회 철야 특별 기도 정진)

상근기도 못되면서 신심도 없으면서 자력수행 하는 것은 험난한 망망대해를 헤엄치며 건너려는 어리석은 것과 같으니 3333배 금강의 배를 타고 9999회 감사의 노래 지어 제 7 말라야식인 에고의 업장을 깨버리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환희심으로 가득한 대자유 부처님 참마음으로 가뵙시다.

<열을 뽕차게 잘라는 법>의 저자이며 철을 500만배 정진한 청정선남과 함께 최후부터 끝까지 죽어소리에 맞춰 일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 저녁 7시-9시까지 2시간동안 호흡에 맞춰 절하는 비법을 2시간 배운 뒤 절대 숨차지 않고 활력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108배하는 기본으로 가볍게 3333배 정진에 도전하십시오. 7-8배 노도인 어린이도 끝까지 정진한 불자가 많으며 설악산 불정암을 하루 한번에 갔다올 수 있는 힘이 누구나 생깁니다. 가슴이 열리고 단전도 돌리고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는 신비로운 기적 같은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01. 5. 26 토요일 저녁 9시 ~ 일요일 아침 7시

■ 준비물 공양미, 기도포, 세면도구

백만불자 18배 만일철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6736 (Fax겸용)

◎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중점 하차 전화 요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isan/